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에 관한 연구

— 서울시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중심으로

방 성 훈* · 김 수 현**

◀ 요약 ▶

우리나라는 급속한 외국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 밀집주거지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계 중국인들은 그 숫자도 많을 뿐 아니라, 밀집주거지 역시 서울에서만 8개나 형성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들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들 간에 서로 다른 특성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대상으로 주민의 내부 구성과 주거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로서 주로 단신으로 단기 체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 자양동은 한국 생활에 비교적 적응한 사람들의 2차 정착지로서 주류 사회에 보다 동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계 중국인들의 밀집주거지 간에 성격 분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계속되는 한, 이 같은 외국인 밀집주거지 분화 경향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경험을 감안 할 때 주거지 분리와 주류 사회와의 동화, 그리고 밀집주거지 간 분화의 다양한 양상들을 이

*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석사과정(neoslam@naver.com)

**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부교수(shkimsdi@sejong.ac.kr, 교신저자)

해하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어 : 외국인 밀집주거지, 한국계 중국인, 가리봉동, 자양동, 주거지 분화

1. 서론

2011년 6월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등록외국인은 약 1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약 1.9%를 차지한다. 1990년에는 0.1%에 불과했으나 2000년 0.4%로 늘어났고, 다시 10여 년 만에 약 80만 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의 밀집거주지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지역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2011년 초 현재 외국인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자치단체는 38개에 달하는데, 2006년 8개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매년 6개씩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행정안전부, 2011).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는 외국인의 40.5%는 한국계 중국인(이른바 조선족)이 차지한다. 일제강점기에 중국으로 이주한 국민들의 후손인 이들은 같은 민족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말 소통이 자유롭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높다. 따라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건설업 및 서비스업 인력난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인력 유입이 허용되어 그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실제 1995년에는 7,367명이었던 한국계 중국인은 2000년 32,443명, 2005년 146,338명이며, 2010년의 경우 공식적 인원은 385,920명인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할 경우 4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계 중국인의 입국이 늘면서, 중국 연변 자치주는 1995년에 86만 명이던 조선족인구가 2009년에는 80만 명으로 감소해 자치주의 지위가 흔들린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이다(서울경제신문, 2012. 2. 3).

그러나 사용 언어나 모습이 동일하다 해도, 이들이 한국인과 꼭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적 문제를 포함해서 임시적 체류자격을 가진 이주 노동자로서 생활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은 한국 사회에 완전히 섞이지 않은 채(혹은 못한 채) 나름의 집단주거지를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다. 취업이나 생활에 관한 정보를 얻고 동향(중국 조선족 자치주 등) 사람들을 통해 정서적 위안을 얻는 차원에서 이들은 밀집해서 거주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주거비도 싼 데다 임시 체류에 적합한 각종 편의서비스들이 발달하여 있다. 대표적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에는 약 3만 명의 한국계 중국인이 생활함으로써, ‘연변거리’라는 이름까지 얻은 바 있다. 서울시내에는 규모나 밀집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와 유사한 한국계 중국인 밀집거주지가 여러 군데 형성되어 있다. 구로구 구로동, 영등포구 신길동·대림동 일대, 금천구 독산동 일대, 관악구 봉천동 일대,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 광진구 자양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대개 과거 공업단지(구로공단, 성수공단) 주변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저렴 주거지역이 이들이 정착한 곳들이다.

이처럼 종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대도시 중심부에 하나 둘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정부나 학계에서도 이들의 존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먼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김은미·김지현, 2009; 박세훈 외, 2009; 홍석기 외, 2010; 정지은 외, 2011),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 사회와 통합하는 방법 등이 논의(홍석기 외, 2010; 홍석기, 2008; 2009)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선진국들의 인종 간 주거지 분리(ethnic segregation) 논의를 소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아직 그 내부 구성이나 주거지 및 계층 이동 현상 등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집단을 차지하면서, 집단주거지를 확장시키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를 보다 세밀히 들여다보는 데 목적이 있다. 즉, 서울에서만도 8개에 달하는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들 사이에 거주자나 지역 성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대표적이며 또한 가장 먼저 형성된 밀집주거지인 ‘가리봉동’과 비교적 최근 형성되었고 또 공간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자양동’의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어떤 사람들이, 왜 그곳에 살아가는지 비교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나름의 성격으로 ‘분화’되는 과정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2011년 10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50일 간, 서울시의 가리봉동과 자양동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들을 만나고, 지역의 주요 결집장소를 관찰하였다. 또한 경제, 사회, 주거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사례지역 별로 주

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 자료를 토대로 두 지역의 성격을 비교 하였다.

이 논문은 위와 같은 현장 조사 외에도 외국인 주거지 분리 현상을 진작부터 경험한 선진국들의 연구 경향을 정리함으로써, 우리나라 밀집주거지 분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찾고자 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소수인종에 대한 차별과 사회경제적 단절, 주거지 분리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현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물론 그들의 연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무의미하지만, 날로 외국인 체재자가 늘어나고 주거지 분리 현상의 맹아가 나타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연구흐름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이론적 검토와 연구 내용

1)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과 분리 논의

과거 중상주의 시대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교역을 했으며, 근대에 들어와 광범한 식민지를 유지했을 뿐 아니라 노예무역까지 일삼았던 선진국들은 다양한 인종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미 소수인종이 집단적 거주지를 형성한 것은 2-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과거에 형성된 집단 주거지를 중심으로, 후손들이 재생산되는 한편 노동력 확보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신규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외국인 주거 관련 연구는 먼저, 주거지 분리 현상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더 심화되는 중인지 완화되고 있는지 경향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기본 틀을 이루고 있다. 이른바 주거지 분리지수(segregation indices)를 활용한 비교 연구들이다. 이들은 대개 나라별,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는 주거지 분리의 경향성을 밝히고 그 이유를 탐색하고 있다(Houston, 2010(스코틀랜드 Dundee); Ireland, 2008(유럽 6개 도시); Johnston et al., 2007(미국 대도시); Hårsman, 2006(스웨덴 스톡홀름); Iceland et al., 2011(영국, 미국); Grbic et al., 2010(뉴질랜드); Iceland et al., 2008(미국); Musterd, 2005(유럽)).

특히 이를 주택정책 체제(housing regime)와 연결하여, 자유주의 모델 국가일수록 분리가 심하고 조합주의 국가가 덜하다는 분석도 눈에 띈다(Arbaci, 2007; 2008).

이민자나 소수민족이 기존 사회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동화(assimilation), 분절적인 동화(segmented assimilation) 그리고 인종별 불이익(ethnic disadvantage)의 세 가지 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Iceland et al., 2011). 물론 각각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주거지 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주류사회의 차별에 따른 배제 요인과 소수 외국인 스스로의 필요에 따른 자발적 요인(이른바 self-segregation)이 겹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차별과 배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고전적 관점이지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소수민족 스스로 분리를 선택한다는 측면 역시 비중 있게 볼 필요가 있다(Kalra & Kapoor, 2009; Bouman-Doff, 2007). 특히 동일 민족 간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측면이 중요하다(Andersen, 2010). 그런데 주거지 분리는 주류 사회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갈등적인 현상이다(Bolt et al., 2010). 소수민족들의 특정지역 결집은 사회전체의 통합성을 떨어뜨리고, 주류 사회와 동떨어진 계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또 소수민족의 낮은 경제적 지위와 이들이 특정 지역에 결집하는 데 따른 빈곤집중, 또 그에 따른 범죄, 일탈의 확대재생산 문제는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 되어 왔다. 특히 2005년의 유럽 인종 폭동은 그 발발지역이 공공 임대주택 단지, 곧 이민자 밀집거주지였다는 점이 주거지 분리 문제를 더욱 정치적인 문제로 부각시킨 바 있다(Shon, 2010).

따라서 서구에서 주거지 분리는 ‘극복해야 될 무엇’으로 간주되어 왔다. 주류 사회로 이주하여 동화되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유색인종을 집단거주지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거나(미국의 HOPE VI 프로그램), 주택재개발을 통해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접근(영국)하기도 했다(Phillips & Harrison, 2010). 그러나 이들의 자발적 이주 빈도는 매우 낮으며(Bolt & Kempen, 2010), 설령 이주하더라도 유색인종과 혼합된 지역의 백인들이 다시 떠나버리기 때문에 주거지 분리가 재생산되기도 한다(Bolt et al., 2008). 따라서 이주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개 현지에서 출생한 2세이거나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 또 취업 후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 국한되며, 반면 복지수혜자나 불안한 체류조건을 가진 난민인 경우는 이주하기 어렵다(Andersen, 2010). 이 때문에 단순히 거주지를 통합하려는 사회 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Phillips & Harrison, 2010), 노동조건 개선, 주택정책, 학교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중요하다(Musterd & Ostendorf, 2009; Phillips, 2010). 특히 주거지 분리보다 학교 간 분리가 더 심각한데, 이는 주거지 분리를 세대에 걸쳐 확대재생산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Karsten et al., 2006; Johnston et al., 2006).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밀집주거지 단계는 어떤 상황일까? 일반적으로 외국인 밀집주거지 형성 단계가 개인이주 → 가족 및 친족 네트워크 형성 → 공동체 및 경제 인프라 구축 → 영구 정착지 형성 및 소수민족의 정치화 과정을 겪는다고 본다(박세훈, 2010),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외국인 커뮤니티가 유입기 → 밀집기 → (대규모로 확장되는) 포화기 → (부근에 새로운 작은 규모로 형성되는) 분화기를 겪는다고 할 때,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앞서 4단계인 분화기의 초기 단계라고 보기도 한다(홍석기 외, 2010).

이처럼 아직 우리나라의 외국인 밀집주거지는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하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구나 조사도 그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주거지 분리지수를 적용하여 분포를 살펴본 연구(박윤환, 2010; 정지은 외, 2011)나 이들 커뮤니티들을 성격별로 구분한 연구(김은미·김지현, 2008; 홍석기 외, 2010; 박세훈 외, 2009; 박세훈·정소양, 2010; 하성규 외, 2011) 등이 주류를 이룬다. 즉,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력 유입의 역사가 오래되지도 않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이주를 사실상 허가하지 않는 이민정책으로 인해, 선진국들과 동일한 방향으로 외국인 문제나 주거지 분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다만 한국계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점차 심층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는데, 김현선(2010)은 구로구 일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주 이유와 정주 의식을 밝히고 있고, 한성미(2010)는 가리봉동의 장소적 특성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하지만 아직 한국계 중국인들의 집단주거지 간 특성이나 주거지 선택 요인을 비교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내부구성의 다양성과 주류 한국 사회와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도 아직 기초적인 연구수준에 머물러 있다. 근본적으로 한국계 중국인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도 쉽고 종사하는 분야도 대인서비스가 많아서 그 주거지 형성과 분화, 주류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내용과 조사 방법

국내의 외국인 밀집주거지 분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지 않고, 외국의 경험이 국내의 현실과 상이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문화적 동질성도 높으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등 타 이민족과는 다른 특수한 경우이다. 이에 앞에서 살펴본 홍석기 외(2010)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가 분화되는 초기에 있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분화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 중 형성시기가 상이하고 밀집주거지별로 인접해있지 않으며, 외국인의 집중도가 높고 주거 및 상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각 사례지를 대상으로 지역성격, 거주민특성, 주거특성을 비교하여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한 분화과정에서 주류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조사 및 분석은 질적연구와 양적연구 방법을 적용한 혼합연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질적연구 방법으로는 ‘사실적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현지조사,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는 주거지 및 상업·인프라의 입지특성, 시설분포 등 지역의 물리적 현황을 현장관찰과 사진촬영을 통해 기록하였고, 심층면접조사는 한국계 중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주간 각 주거지별로 15명씩 총 30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각 밀집주거지의 형성원인, 과정, 특성 등에 대하여 사례대상지 내 거주자들 관점에서 그 경험들을 기록하였다.

또한 밀집주거지 거주민의 사회·인구학 및 경제적 특성과 주거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양적연구 방법의 일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언어,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내국인 조사원과 한국계 중국인 조사원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밀집주거지에 거주하는 한국계 중국인을 대상으로 2011년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주간 실시하여 각 사례지역 당 70부씩, 총 140부를 회수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의 경우 사례지역 내 한국계 중국인들 중 단순임의추출법(random sampling)을 적용하여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였으며 설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계 중국인에 한해서는 조사원이 보충설명하면서 기입하는 대인면접법을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3.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 비교

1) 서울시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의 변화

서울시의 2011년도 현재 전체 등록외국인 수는 약 28만 명으로, 이중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까지 20-30%의 불과하던 한국계 중국인은 2003년 이후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2003년 취업관리제 및 고용허가제¹⁾, 2007년 방문취업제²⁾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계 중국인의 연도별 증가율은 국내경기 상황과 외국인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28.5%를 보이고 있다.

[표 1] 서울시 외국인 인구 및 한국계 중국인 인구 추이

구 분	외국인 인구	한국계 중국인 (중국국적)	비율(% (한국계 중국인/ 서울시 외국인)	한국계 중국인의 연도별 증가율(%)
2011	279,095	178,386	63.9	4.9
2010	262,902	170,125	64.7	0.4
2009	255,749	169,413	66.2	0.02
2008	255,207	169,385	66.4	12.7
2007	229,072	150,270	65.6	42.9
2006	175,036	105,177	60.1	35.1
2005	129,660	77,881	60.1	20.3
2004	114,685	64,762	56.5	23.2
2003	102,882	52,572	51.1	133.3
2002	73,228	22,535	30.8	6.0
2001	67,908	21,259	31.3	22.0
2000	61,920	17,432	25.2	41.9
1999	57,189	12,283	2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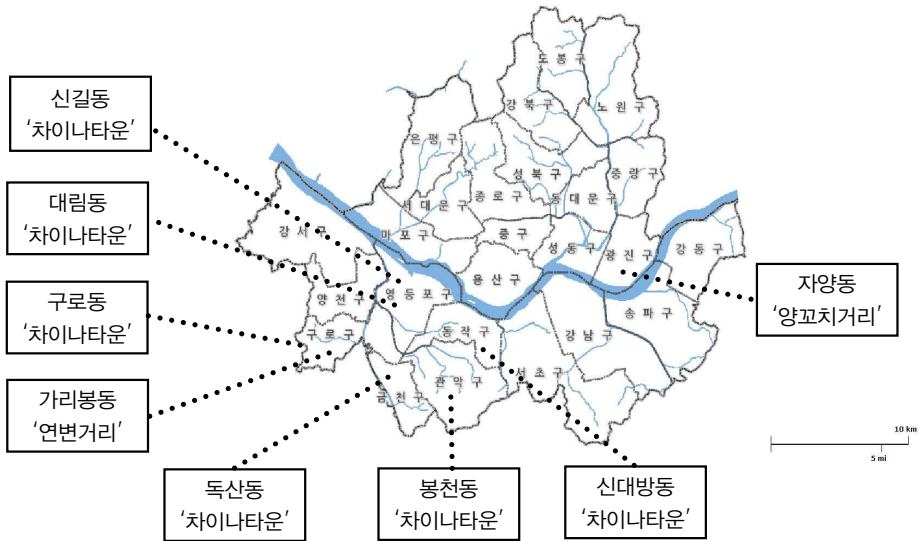
주 : 2005년까지는 중국 국적으로 통합되어 있고, 2006년부터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이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자료 : 서울시. 통계연보. 각 연도에서 재구성

1)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2) 중국 및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에 대해 방문취업 사증 발급. 유효기간 5년의 복수 사증으로 한번 입국하여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내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신청하여 취업 알선을 받거나 스스로 일자리를 구해서 취업이 가능하다(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그림 2] 서울의 주요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 현황



자료: 홍석기 외(2010). p.32에서 필자 재구성

2) 사례지역 개요

(1) 가리봉동

사례대상지는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를 기점으로 동남쪽으로 길게 위치해 있는데, 가리봉시장 삼거리부터 공단 오거리까지 300m에 걸쳐서 이른바 ‘조선족거리’ 혹은 ‘연변거리’를 형성하고 있다(이하 ‘가리봉동’으로 부름). 이 지역은 1960년부터 1980년대에 걸쳐 주로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별집’이 자리 잡았던 곳이다. 1980년대 후반 산업구조조정으로 구로공단 내 많은 업체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자 가리봉동은 점차 공동화되었으며, 남아 있던 별집을 중심으로 극빈층이 유입되었다. 이후 1990년대 말부터 한국계 중국인 노동자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을 이유로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거주지역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2002년 ‘불법체류자 종합방지대책’³⁾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박세훈, 2010).

³⁾ 법무부는 2002년 3월 12일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출국을 유예해 준다는 내용의 ‘불법 체

이 지역에는 모두 137개⁴⁾의 중국관련 상업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현황을 보면 음식점이 50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노래방(17개), 식료품점(16개), 주점·다방(12개), 여행사(10개), 취업소개(8개), 의류잡화점(10개), 환전소(2개)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원센터, 교회, 신문사 등 다수의 관련 시설이 입지해 있다. 이들 시설들은 한국계 중국인들이 음식료품 구입, 유희, 취업, 쇼핑 등 다양한 문화·생활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가리봉동은 2003년 균형발전촉진지구,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더 이상 개보수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물리적 쇠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임대용 방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탈법적인 수선도 진행 중이다.

[그림 3] 가리봉동 밀집주거지 및 상업지 전경



(2) 자양동

사례대상지는 행정구역으로는 자양4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2호선 건대역 5번 출구에서 약 200m 정도 북서방향으로 내려오면 동서로 600여m에 걸친 ‘양꼬치거리’를 중심으로 밀집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다(이하 ‘자양동’으로 부름). 이 지역에는 10여 년 전까지 성수

류자 종합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불법 체류자 자진 신고 기간(2002년 3월 25-5월 29일)을 설정하였다. 법무부에 공식 집계된 불법 체류자 27만 6,000명 중 93%인 25만 6,000여 명이 자진 신고를 해서 준합법적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인 15만 1,000명이 신고했고, 그중 중국동포가 10만 명을 넘게 차지하였다(디지털문화대전, guro.grandculture.net).

⁴⁾ 중국 관련 상업시설은 한국계 중국인이 운영하거나 한국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변거리’를 중심으로 한 거리 중심의 상업시설 분포로서 사례대상지 전체의 상업시설 수와는 차이가 있다. 이후 자양동도 마찬가지다.

동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과 자동차부품업체, 봉제공장, 신발공장 등의 소규모 공장시설들이 입지해 있었다. 그러나 2005년경부터 중국관련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한 다음, 2008년도부터 급속도로 증가, 한국계 중국인 밀집주거지로 활성화 되었다.

자양동에는 ‘양꼬치거리’가 형성된 동일로 18길을 중심으로 73개의 중국관련 상업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중 음식점이 37개로 가장 많은 가운데 노래방(7개), 식료품점(9개), 여행사(4개), 취업소개(3개), 국제무역(3개), 환전소(5개)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중국동포교회 1개와 다문화지원센터 2개가 입지하고 있다. 또 밀집주거지 중앙에는 ‘노론산시장’이 입지해 있는데 ‘양꼬치거리’와는 분리된 형태로, 내국인의 이용이 많은 가운데 한국계 중국인들도 식료품 및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고 있다.

[그림 4] 자양동 밀집주거지 및 상업지 전경



3) 거주민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가리봉동에는 혼자 생활하는 비율이 50.0%에 이르는데, 이는 중국에 가족을 두고 경제 활동을 위해 단신으로 한국으로 온 한국계 중국인이 많음을 보여준다. 반면 자양동은 2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71.5%로, 부부나 자녀까지 포함된 가족 형태가 다수를 이룬다. 또 이 지역에는 인근 대학가를 다니는 한국계 중국인 학생들이 모여 사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연령은 가리봉동이 50대 비중이 훨씬 높은 반면, 자양동은 20대에서부터 비

교적 고루 분포하고 있다. 자양동은 그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가족 구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체류형태는 대부분 90일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머물고 있지만, 자양동에 영주권자(10.0%) 및 국적취득자(2.9%)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리봉동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이 14.3%인데 반해 자양동은 55.7%를 차지하고 있다. 면접 조사에서는 단신으로 입국하여 일정 수준 적응하면 가족을 초청하여 정착하는 사례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자양동의 가구원수와 체재기간은 그런 점에서 상관관계가 있다. 다음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표 2] 일반적 특성

구 분		가리봉동		자양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별	남	44	62.9	29	41.4
	여	23	37.1	41	58.6
연령	20대	1	1.4	7	10.0
	30대	8	11.4	15	21.4
	40대	24	34.3	22	31.4
	50대	32	45.7	20	28.6
	60대	5	7.2	4	5.7
	70대 이상	0	0.0	2	2.9
가구원 수	1인	35	50.0	20	28.6
	2인	22	31.4	27	38.6
	3인	6	8.6	13	18.6
	4인 이상	7	10.0	10	14.3
체류 형태	단기(90일 미만)	0	0.0	1	1.4
	장기(90일 이상)	69	98.6	60	85.7
	영주	1	1.4	7	10.0
	국적취득	0	0.0	2	2.9
한국 거주 기간	3개월 미만	0	0.0	3	4.3
	3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5.7	5	7.1
	1년 이상 2년 미만	14	20.0	10	14.3
	2년 이상 5년 미만	35	50.0	13	18.6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4.3	19	27.1
	10년 이상	0	0.0	20	28.6
항목별 합계		70	100	70	100

한국에 온 지 10년 되었는데 처음에는 혼자 살다가 돈을 모으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불렀어. 한국에서 오래 살다보니 다시 중국 가서 일하기도 쉽지 않을 거 같고 돈벌이도 여기가 좋아서 가족 모두 여기로 오라고 했지…… 나처럼 잘 풀린 경우도 있지만 여기 싫다고 가버리는 조선족도 많고 중국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조선족도 수두룩해. (임의빈(가명), 48세, 남, 자양동)

(2)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자의 직업은 두 지역 모두 ‘단순노무직’이 78.6%, 5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자양동은 ‘서비스 및 판매직’이 34.3%로 가리봉동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인과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해야 되는 대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양동에 많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그만큼 체류 기간이 길고 한국 사회에 더 적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일하는 곳도 두 지역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리봉동은 일자리를 찾아 전국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양태를 보이기 때문에, 다분히 임시주거지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자양동은 전원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성의 경우 강남지역의 식당에서 일하거나 가사도우미 일을 주로 하고 있었으며, 남성들은 서울의 공사 현장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수입도 두 지역이 차이를 보인다. 가리봉동과 자양동 모두 100-150만 원의 소득구간이 61.8%, 58.0%로 가장 많지만, 자양동은 가리봉동과 달리 200만 원 이상이 11.5%나 된다. 주요 소비 지출의 경우 두 지역 모두 ‘주거비’가 가장 높지만, 자양동은 특이하게 교육비 지출이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자양동에 자녀와 함께 사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례들은 두 지역의 특징적인 생활형편을 나타내는 면접조사 결과들이다.

인천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월급은 180만 원 받고 있고 일한 지는 2개월 됐죠.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돈은 아직 모으지 못했어요. 돈 모아서 중국에 보내줘야 되는데 일한 사람들하고 술 한 잔하고 그러면 쓸 수밖에 없죠. …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 알아야 외롭지도 않으니까요. … 멀리 지방으로 일하러 가면 잠은 거기서 재워주니 집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연고지일 뿐이죠. (계은철(가명), 38세, 남, 가리봉동)

여기서 장사한지 2년 됐어요. 워낙 가게들이 많아 경쟁이 치열하죠. 돈벌이는 건 적은데 나갈 돈은 많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 전월세값도 올라 비용도 많이 나가는데 애들 공부는 시켜야 되고..... 학원비나 유치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힘들어 죽을 지경입니다. (장영(가명), 39세, 남, 자양동)

[표 3] 사회경제적 특성

구 분		가리봉동		자양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업	단순 노무직	55	78.6	37	52.9
	농업, 어업 숙련 근로직	2	2.9	2	2.9
	서비스 및 판매직	6	8.6	24	34.3
	사무직	5	7.0	6	8.6
	무 직	2	2.9	1	1.4
일하는 지역	서울	40	58.8	69	100
	경기	9	13.2	0	0.0
	인천	10	14.7	0	0.0
	강원도	2	2.9	0	0.0
	5대 광역시	3	4.4	0	0.0
	충청남북도	2	2.9	0	0.0
	전라남북도	1	1.5	0	0.0
	경상남북도	1	1.5	0	0.0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2	2.9	1	1.4
	100-150만 원 미만	42	61.8	40	58.0
	150-200만 원 미만	24	35.3	20	29.0
	200-250만 원 미만	0	0.0	2	2.9
	250-300만 원 미만	0	0.0	1	1.4
	300-350만 원 미만	0	0.0	3	4.3
	400만 원 이상	0	0.0	2	2.9
수입 중 주요 소비	주거비	28	41.2	40	58.0
	교육비	0	0.0	4	5.8
	식료품비	21	30.9	19	27.5
	교통비	11	16.1	2	2.9
	기타	8	11.8	4	5.8
항목별 합계		70	100	70	100

4) 주거 특성

(1) 주거현황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면, 가리봉동은 쪽방으로 개조된 단독·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90.0%로 가장 많고, 교회 등 주택 이외의 거처나 상가 건물 등에 사는 비율이 10% 정도다. 자양동 역시 원룸형 단독·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지만 (61.4%), 다세대(20.0%), 연립주택(12.9%) 등에도 다수 거주한다.

세사는 방식은 두 지역 모두 보증부월세가 84.0%, 67.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가리봉동은 무보증 월세, 자양동은 전세가 분포하는 점이 지역의 특징을 보여준다. 평균 임대료는 가리봉동이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318만 원, 월세는 21만 원이고, 무보증은 월세 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자양동은 보증부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535만 원, 월세 32만 원으로 가리봉동보다 보증금은 217만 원, 월세는 11만 원 더 높았다. 또 전세의 경우 평균 5,500만 원 보증금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표 4] 주택의 종류와 점유형태

주택의 종류		가리봉동		자양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주택 종류	단독/다가구주택	63	90.0	43	61.4
	다세대주택	0	0.0	14	20.0
	연립주택	0	0.0	9	12.9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2	2.9	0	0.0
	주택외의 거처	5	7.1	4	5.7
주택 점유 형태	전세	0	0.0	18	25.7
	보증 월세	59	84.0	48	68.6
	무보증 월세	8	11.4	0	0.0
	무상	3	4.3	3	4.3
	기타	0	0.0	1	1.4
항목별 합계		70	100	70	100

사용 방수도 가리봉동과 자양동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가리봉동은 부엌조차 없는 원룸이 41.4%인 반면, 자양동은 방 2개 이상이 50.0%에 이른다. 사용 면적 역시 가리봉동은 14㎡(3평) 이하가 반이 넘는 반면, 자양동은 이보다 훨씬 면적이 다양하고 넓은 편이다.

[표 5] 주택의 구조 및 면적

구 분		가리봉동		자양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구조	방1개	29	41.4	4	5.7
	방1 + 부엌	34	48.6	31	44.3
	방2 + 부엌	6	8.6	33	47.1
	방3 + 부엌	1	1.4	2	2.9
면적	14㎡ 미만	38	54.3	11	15.7
	14 - 26㎡ 미만	21	30.0	17	24.3
	26 - 36㎡ 미만	5	7.1	16	22.9
	36 - 46㎡ 미만	2	2.9	4	5.7
	46 - 55㎡ 미만	1	1.4	9	12.9
	55 - 85㎡ 미만	0	0.0	10	14.3
	85㎡ 이상 ⁵⁾	3	4.3	3	4.3
항목별 합계		70	100	70	100

(2) 주거 만족도와 이동

이제 현 주거에 대한 만족여부와 이주계획을 살펴보자. 먼저 주택 특성에 대해 두 지역 모두 습기·누수, 채광·통풍, 화장실·부엌 이용 등에서 불만이 많다. 이는 쪽방 및 반지하 방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주택의 구조상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주거 특성의 경우, 가리봉동은 집세·방세(61.4%), 사생활보호(44.3%), 치안 및 안전성(52.9%)에 대한 불만이 높다. 반면 자양동은 전반적으로 ‘만족’의 비율이 높았으며 집세·방세(82.9%)만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 사정 역시 자양동은 전철 2개 노선이 가깝게 지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 다음은 이들 두 지역의 주거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례들이다.

⁵⁾ 85㎡ 이상 거주하는 비율은 두 지역 모두 주택외의 거처 중 교회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저는 중국에서 이 동네 소문 듣고 바로 와서 살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에 이런 집이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냄새도 심하고, 반지하나 1층은 습기가 심해서 살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방값은 싸니까 좋긴 한데 너무 시설이 형편없고 술 먹은 사람들 소리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 빨리 이 동네에서 이사 가려고요. (강영남(가명), 39세, 여, 가리봉동)

전에 가리봉동 살다가 왔지. 한국에 온지 벌써 20년이 다 되가니까 한국사람 다 된 거지 돈도 좀 벌었고. ... 이 동네는 중국식당도 많고 특히 2,7호선 환승역이잖아. 조선족들은 차가 없어서 무조건 교통이 좋아야 해. ... 가끔 날 좋을 때는 한강 가서 술도 마시고 가리봉동 보다는 여기가 훨씬 좋지. (최철진(가명), 55세, 남, 자양동)

[표 6] 주택 및 주거특성 만족도

구 분	가리봉동				자양동				
	불만	보통	만족	합계	불만	보통	만족	합계	
주택 특성	습기, 누수	49 (70.0)	15 (21.4)	6 (8.6)	70 (100)	30 (42.9)	18 (25.7)	22 (31.4)	70 (100)
	채광, 통풍	35 (50.0)	27 (38.6)	8 (11.4)	70 (100)	33 (47.1)	18 (25.7)	29 (27.1)	70 (100)
	소음	22 (31.4)	38 (54.3)	10 (14.3)	70 (100)	28 (40.0)	27 (38.6)	15 (21.4)	70 (100)
	악취	34 (48.6)	30 (42.9)	6 (8.6)	70 (100)	22 (31.4)	28 (40.0)	20 (28.6)	70 (100)
	침수, 화재	29 (41.4)	30 (42.9)	11 (15.7)	70 (100)	13 (18.6)	20 (28.6)	37 (52.9)	70 (100)
	난방, 단열	2 (2.9)	27 (38.6)	41 (58.6)	70 (100)	1 (1.4)	12 (17.1)	57 (81.4)	70 (100)
	방 크기	26 (37.1)	29 (41.4)	15 (21.4)	70 (100)	49 (70.0)	15 (21.4)	6 (8.6)	70 (100)
	화장실/ 부엌 이용	58 (82.9)	6 (8.6)	6 (8.6)	70 (100)	46 (65.7)	20 (28.6)	4 (5.7)	70 (100)
주거 특성	집세/ 방세	43 (61.4)	21 (30.0)	6 (8.6)	70 (100)	58 (82.9)	7 (10.0)	5 (7.1)	70 (100)
	교통 및 주변 시설	20 (34.3)	40 (57.1)	6 (8.6)	70 (100)	1 (1.4)	10 (14.3)	59 (84.3)	70 (100)
	이웃 관계	16 (22.9)	36 (51.4)	18 (25.7)	70 (100)	1 (1.4)	10 (14.3)	59 (84.3)	70 (100)
	사생활 보호	31 (44.3)	24 (34.3)	15 (21.4)	70 (100)	0 (0.0)	4 (5.7)	66 (94.3)	70 (100)
	치안 및 안전성	37 (52.9)	19 (27.1)	14 (20.0)	70 (100)	2 (2.9)	7 (10.0)	61 (87.1)	70 (100)

주거이동 계획도 두 지역이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 가리봉동은 약 60%가 이주하기를 원하는데, 그 이유가 교통사정, 일자리, 나쁜 시설 때문이라는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양동은 이주계획이 낮은 편인데, 그 이유도 시설 때문이라는 비중이 반 이상이다. 좀 더 나은 집을 원하는 것이다.

[표 7] 이주계획 및 이주사유

구 분		가리봉동		자양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주 계획	이주계획 있다	41	58.6	23	32.9
	이주계획 없다	29	41.4	47	67.1
합 계		70	100	70	100
이주 계획 이유	집세·방세	6	14.6	6	26.1
	현재 집시설 불만	10	24.4	12	52.2
	일자리	10	24.4	1	4.3
	교통	12	29.3	1	4.3
	소음·공해	3	7.3	1	4.3
	기타	0	0.0	2	8.7
합 계		41	100	23	100

현재 거주지로 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가리봉동은 중국에서 바로 온 경우가 75.7%로 가장 많다. 가리봉동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한 첫 기착지인 셈이다. 이는 그만큼 가리봉동에 한국계 중국인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주거형태로 보면 단신 이주자를 위한 공간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면 자양동은 서울의 다른 곳에서 이주한 비율이 반이나 된다. 중국에서 직접 온 경우도 32.9%지만, 이때는 이미 자양동에 자리 잡은 가족들에게 합류한 경우가 많다.

또 현 거주 지역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가리봉동은 집값·방값이 싸서(27.1%), 직장이 가까워서(25.7%), 동포들이 많이 살아서(22.9%) 순서인 반면, 자양동은 직장(주로 강남)이 가깝고(50.0%),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순서이다. 자양동은 이미 서울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다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거지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주거비, 일자리, 교통 등을 감안하여 주거지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가리봉동은 초기 정착에 필요한 인력시장과 건설 및 일용직이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접근이 용이한 입지적 특성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초창기에 형성된 조선족 교회가 있어서, 필요시에 응급주거나 물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현지조사 당시 110명이 교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기도 했다.

[표 8] 현 거주지 정주특성

구 분		가리봉동		자양동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직전 거주지	중국에서 이주	53	75.7	23	32.9
	서울에서 이주	8	11.4	35	50.0
	경기도에서 이주	9	12.9	12	17.1
현 거주지 선택 이유	동포들이 많이 살아서	16	22.9	12	17.1
	집값/방값이 싸서	19	27.1	4	5.7
	버스, 지하철 등 교통이 편리해서	6	8.6	15	21.4
	직장이 가까워서(일자리 찾기 쉬워서)	18	25.7	35	50.0
	생활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8	11.4	1	1.4
	종교복지단체 소개	3	4.3	1	1.4
	기타	0	0.0	2	2.9
현 거주지 거주 기간	3개월 미만	1	1.4	8	11.4
	3개월 이상 1년 미만	13	18.6	15	21.4
	1년 이상 2년 미만	23	32.9	16	22.9
	2년 이상 5년 미만	27	38.6	19	27.1
	5년 이상 10년 미만	6	8.6	10	14.3
	10년 이상	0	0.0	2	2.9
항목별 합계		70	100	70	100

5) 사례분석 종합

가리봉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역으로,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3년 무렵 활성화되었다. ‘연변거리’라는 이국적 이름으로 대중매체에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어,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진 바 있다⁶⁾. 반면 자양동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상점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2008년 경 활성화된 곳이다. 가리봉동과는 약 5년 정도 시차가 있다. 이렇게 형성시기에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주민특성이나 주거지를 선택한 이유 등도 뚜렷한 차이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리봉동은 중국에서 단신(50.0%)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바로 정착(75.7%)하기에 좋은 지역이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풍부하고, 일자리 연계망이 발달해 있으며 단순 노무직 수요가 많은 경인지역으로 나가는 교통망이 풍부하다. 일자리도 서울 외에 경인지역에 넓게 퍼져 있고, 전국으로 일을 다니기도 한다. 수입은 조사 대상자 모두 월 200만 원 이하이다. 그만큼 월세(84.0%) 및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가 많은 편이고(11.4%), 임대료는 싸지만 주거 면적은 매우 좁다. 대신 주택 자체 및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이 높다. 부엌이 없는 단칸방을 쓰는 경우가 특히 많다(41.4%). 거주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58.6%). 결국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이 서울, 또는 한국 생활에 처음 적응하는 기착지이다. 초기, 단신, 단기간 생활하기에 적합한 방식으로 지역이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인 사회와는 단절도가 높다. 지역 상가의 고객 역시 한국계 중국인으로 집중되어 있고, 한국인은 일종의 ‘풍물구경’ 수준에서 지역을 지나갈 뿐 주민들과 어울릴 수는 없다. 상점 운영자는 모두 한국계 중국인들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공간’인 셈이다.

반면 자양동은 가리봉동과는 상당히 다르다. 서울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으며(67.1%), 중국에서 바로 오더라도 가족이나 친지가 미리 자리 잡은 곳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혼자 사는 비율보다 2인 이상(71.5%), 주로 가족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많다. 한국 생활도 상대적으로 오래 되었으며(5년 이상 55.7%), 일부는 영주권까지 가지고 있다(10.0%). 자녀 교육을 일반 공립학교에서 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학원비까지 상당액 지출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는 모두 서울 시내이다. 대인 서비스업 및 사무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다(42.9%)는 것은 그만큼 한국 생활에 더 적응했다는 뜻이며, 이 지역을 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강남권으로의 일자리 교통이 좋기 때문이다. 월수입은 가리봉동에 비해 높은 편인데, 200만 원 이상도 11.5%에 이른다. 주거는 가리봉동에서는 전

⁶⁾ 대표적으로 MBC 텔레비전이 특집방송으로 소개한 「가리봉동의 꿈」이 있다(2011. 8. 26 방송).

혀 볼 수 없는 전세 형태가 상당수 있으며(25.7%), 전세 보증금은 평균 5,500만 원에 이른다. 사용하는 방수가 2개 이상인 경우가 50.0%나 되며,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은 적은 편이다. 다른 곳으로 이주할 계획 역시 적은 편이며(67.1%), 장기거주가 많은 편이다. 물론 주거여건이 좋은 만큼 임대료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다. 상권은 가리봉동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한국인들도 고객으로 어울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상점운영은 한국계 중국인이 하지만, 고객의 약 70%는 한국인이다. 비교적 개방적이고 주류 사회 친화적인 외국인 밀집거주지인 것이다. 인근 ‘건대입구 로테오 거리’와 연결되어 관광 자원화되는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자양동은 가리봉동에 비해 훨씬 더 주류사회와 동화되어 있다. 한국계 중국인 역시 서울 생활에 많이 적응한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취감을 가지고 정착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9] 가리봉동과 자양동의 주요 특징 비교

구 분		가리봉동	자양동
활성화 시기		2003년	2008년
중국관련 상점 수		137개	73개
연령		50대	40대
가구원 수		1인	2인 이상
5년 이상 한국 체재 비율		14.3%	55.7%
직전 거주지		중국	서울의 다른 곳
5년 이상 현 거주지 거주 비율		8.6%	17.2%
이주 계획		58.6%	32.9%
직업	단순 노무	78.6%	52.9%
	서비스	8.6%	34.3%
서울시내 일터		58.8%	100.0%
200만 원 이상 월 수입		0%	11.5%
주거	전세	0%	25.7%
	무보증 월세	11.4%	0%
	사용 방수	방 1 + 부엌	방 2 + 부엌
	3평 미만 사용	54.3%	15.7%

주: 연령, 가구원 수, 직전 거주지, 사용방수의 경우 최빈값임

결국 가리봉동과 자양동의 사례는 외국인 밀집주거지가 형성되고 격리되는 전통적인 주거지 분리의 경험과 함께, 그중 일부가 주류 사회에 적응하면서 분화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아직 그 분화과정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현상, 즉 일반 주류 사회와 융화되는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4. 결론

이 논문은 동일 국적의 외국인 밀집주거지들 간에 내부 구성이나 정주 여건, 주거 이동 등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계 중국인들의 대표적인 밀집주거지인 가리봉동과 자양동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현지 관찰 등을 통해 두 지역이 상당히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의 한국계 중국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초창기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등 서울의 서남부 지역에 집중 형성되었던 밀집주거지는 광진구, 동대문구, 송파구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확산은 단순히 인구가 늘어나서 확장되는 측면만이 아니라, 밀집주거지의 성격이 분화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리봉동과 자양동은 한국 사회와의 동화 또는 적응 정도에 따라 이미 상당한 정도 분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리봉동은 한국계 중국인들의 초기 정착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단기체류가 많고 일자리 정보가 발달해 있으며 주거도 저렴한 단기생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상업점들은 거의 전부 한국계 중국인을 대상으로, 또 그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의 폐쇄적 커뮤니티로 형성되어 있다. 원래 구로공단 인근 ‘별집’ 지역인데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물리적 쇠락이 계속되고 있어 주거환경도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아직 특별한 사회적 문제는 발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주류 사회와의 단절 양상이 뚜렷하다.

반면 자양동은 가리봉동 같은 초기 정착지를 거친 한국계 중국인들의 2차 정착지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한국 생활에 적응했고, 직업, 수입, 가족구성 등이 가리봉동과

는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이 지역에서는 보다 쾌적한 환경(amenity)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주거상향 이동의 가능성이 열려있다. 상점가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운영하더라도 그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물거리화’되어 한국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되었다. 아직 주류 사회와 동화된 단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류 사회와 섞이는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외국인, 특히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계 중국인의 밀집주거지는 지속적으로 고밀화 내지 확장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확장은 평면적인 방식이 아니라 구성원의 다양성을 반영한 차원에서 다원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선진국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더 잘 적응한 사람들이 더 쉽게 동화’되며, 또한 주류 사회와 공간적, 사회적으로 더 친근하게 되는 양상이 될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어떤 밀집주거지는 좀 더 단절이 심해지는가 하면 다른 주거지는 보다 융화되는 방식으로 분화가 본격화될 것이다. 또한 개별 밀집주거지들도 형성, 확대, 확산, 쇠락 등 공간생태적인 변화과정을 겪을 것이다. 물론 외국인 이민정책의 변화는 이러한 공간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 문제까지는 검토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방경제가 강화되고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떤 형태로든 외국인 유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형성과 변화 추이는 학문적 영역 뿐 아니라 현실 정책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앞두고 ‘문화공존’(이른바 다문화 정책)이라는 방어막을 미리 쳐두는 정도로 정책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이 논문이 밝힌 바와 같이 밀집주거지들은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분화, 발전(혹은 어떤 지역은 역으로 정체, 격리)하는 중이다. 이것이 주류사회와 마찰 없이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반대의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이제 외국인 밀집주거지 정책도 그 주거지 특성에 따라 보다 정교하고 다차원적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국내 선행연구들이 아직 다루지 않은 외국인 밀집주거지의 분화현상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연구의 범위를 한 단계 확장했다는 성과는 있다. 그러나 아직은 연구방법이나 문제의식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서구의 주거지 분리 연구결과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했으나, 아직 우리나라의 주거지 분화 단계에 적합한 분석틀로 구성

하지도 못했다. 양적, 질적연구 역시 아직은 탐색적인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보다 전문적인 또는 종합적인 후속연구들을 기대한다.

후속연구 차원에서는 한국계 중국인 외에도 언어나 피부색깔 등에서 분리적 경향이 더 강한 국가출신들의 주거지 특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는 평면적 비교 수준에 그쳤지만, 이주자 집단의 사회적, 경제적, 공간적 변화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도 이어질 필요가 있다. 여러 학문분야가 공동으로 장기간에 걸친 참여관찰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지역성(locality)이나 주거지 선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더 나아가 이민정책 시나리오에 따른 밀집주거지의 변화를 예상하고 대응책을 세우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이미 겪은 주거지 분리와 그 대응 경험은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태도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본토 이주여성이나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대만 사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김은미, 김지현 (2008). 다인종·다문화 사회의 형성과 사회조직. 한국사회학. 42(2). 1-35.
-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사회와 역사. 87. 231-264.
- 박세훈 (2010). 한국의 외국인 밀집지역 : 역사적 형성과정과 사회 공간적 변화. 도시행정학보. 23(1). 69-100.
- 박세훈, 정소양 (2010).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국토연구. 64. 59-76.
-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 박윤환 (2010). 수도권지역 외국인들의 거주지 분리에 대한 연구. 행정논총. 서울대학교 행정연구소. 48(4). 429-453.
- 서울경제신문 (2012). “中연변 조선족 인구 급감…자치주 지위 흔들”. 2012. 2. 3.
- 정지은, 하성규, 전명진 (2011). 외국인 거주자의 주거입지 선택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6(6). 117-129.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1). 각 연도 통계연보.
- 홍석기, 김선자, 이해숙 (2010). 「글로벌 도시 서울을 위한 사회통합정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홍석기 (2008). 「외국인 100만 시대를 위한 서울시의 다문화 사회 전략」. 서울. SDI 정책 리포트 제13호.
- 홍석기 (2009). 「서울, 과연 외국인 친화 도시인가?」. 서울. SDI 정책리포트 제32호.
- 한성미 (2010). 소수자 집단의 장소성 형성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분석: 탑골·종묘공원과 연변거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하성규, 마강래,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91-105.
- 행정안전부 (2010). 「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현황」. 서울: 행정안전부.
- Andersen, H. S. (2010). Spatial Assimilation in Denmark? Why do Immigrants Move to and from Multi-ethnic Neighbourhoods?. Housing Studies. 25(3). 281-300.
- Arbaci, S. (2007). Ethnic Segregation, Housing Systems and Welfare Regimes in Europe. European Journal of Housing Policy. 7(4). 401-433.
- Arbaci, S. (2008). (Re)Viewing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Southern European Cities: Housing and Urban Regimes as Mechanisms of Marginalisation. Housing Studies. 23(4). 589-613.
- Bolt, G. & Kempen, V. R. (2010). Ethnic Segregation and Residential Mobility: Relocations of

- Minority Ethnic Group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2)*, 333-354.
- Bolt, G., Özüekren, A. S. & Phillips, D. (2010). Linking Integration and Residential Segregation.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2)*, 169-186.
- Bolt, G., Kempen, V. R. & Ham, V. M. (2008). Minority Ethnic Groups in the Dutch Housing Market: Spatial Segregation, Relocation Dynamics and Housing Policy. *45(7)*, 1359-1384.
- Bouman-Doff, W. V. D. L. (2007). Involuntary Isolation: Ethnic Preferences and Residential Segregation. *Journal of Urban Affairs*, *29(3)*, 289-309.
- Grbic, D., Ishizawa, H. & Crothers, C. (2010).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in New Zealand, 1991-2006. *Social Science Research*, *39*, 25-38.
- Hårsmann, B. (2006). Ethnic Diversity and Spatial Segregation in the Stockholm Region. *Urban Studies*, *43(8)*, 1341-1364.
- Houston, D. (2010). Changing Ethnic Segregation and Housing Disadvantage in Dundee. *Scottish Geographical Journal*, *126(4)*, 285-298
- Iceland, J., Mateos, P. & Sharp, G. (2011). Ethnic Residential Segregation by Nativity in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Urban Affairs*, *33(4)*, 409-429
- Iceland, J. & Nelson, K. A. (2008). Hispanic Segregation in Metropolitan America: Exploring the Multiple Forms of Spatial Assimil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 741-765.
- Ireland, P. (2008). Comparing Responses to Ethnic Segregation in Urban Europe. *Urban Studies*, *45(7)*, 1333-1358.
- Johnston, R., Poulsen, M. & Forrest, J. (2007). Ethnic and Racial Segregation in U.S. Metropolitan Areas, 1980-2000. The Dimensions of Segregation Revisited. *Urban Affairs Review*, *42(4)*, 479-504.
- Johnston, R., Burgess, S., Wilson, D. & Harris, R. (2006). School and Residential Ethnic Segregation: An Analysis of Variations across England's Local Education Authorities. *Regional Studies*, *40(9)*, 973-990
- Kalra, S. V. & Kapoor, N. (2009). Interrogating Segregation, Integration and the Community Cohesion Agend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9)*, 1397-1415.
- Karsten, S., Felix, C., Ledoux, G., Meijnen, W., Roeleveld, J. & Schooten, V. E. (2006). Choosing Segregation or Integration? : The Extent and Effects of Ethnic Segregation in Dutch Cities. *Education and Urban Society*, *38(2)*, 228-247.
- Musterd, S. & Ostendorf, W. (2009). Residential Segregation and Integration in the

- Netherlands,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9)*, 1515-1532.
- Musterd, S. (2005). Social and Ethnic Segregation in Europe: Levels, Causes, and Effects, *Journal of Urban Affairs*, *27(3)*, 331-348.
- Özüekren1, A. S. & Kempen, V. R. (2003). Dynamics and Diversity: Housing Careers and Segregation of Minority Ethnic Groups, *Housing, Theory and Society*, *20*, 162-171.
- Phillips, D. & Harrison, M. (2010). Constructing an Integrated Society: Historical Lessons for Tackling Black and Minority Ethnic Housing Segregation in Britain, *Housing Studies*, *25(2)*, 221-235.
- Phillips, D. (2010). Minority Ethnic Segregation, Integration and Citizenship: A European Perspectiv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6(2)*, 209-225.
- Shon, Pan Jean-Louis Kée (2010). The Ambivalent Nature of Ethnic Segregation in France's Disadvantaged Neighbourhoods, *Urban Studies*, *47(8)*, 1603-1623.

A study on the differentiation of minority ethnic residential areas in Seoul, Korea – Focusing on Korean Chinese community

Bhang, Seong-hoon* · Kim, Soo-hyun**

As foreign immigrants increase dramatically, the number of ethnic residential areas also grow rapidly in Korea. Of those foreign workers, the majority is Korean Chinese who can speak Korean language fluently and share common culture as the same ethnicity. As of now they are concentrated on 8 areas in Seoul forming their own community with networks for living and finding job.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Korean Chinese residential areas in Seoul. In order to do that the authors researched two typical areas of Garibong-dong and Jayang-dong. The former is bigger and established earlier, became the symbol of Korean Chinese community. The latter area is relatively small and formed recently. Those staying in Garibong-dong are characterized as; single, moved from main land China directly, small sized residing unit and lower income. The place is mainly for the first incoming people to provide convenient environment for adapting in Seoul. On the other hand those staying in Jayang-dong are characterized as; with families, moved from other parts of Seoul, relatively good residence and higher income. Therefore this place is the second residential area for those who became familiar with living in Seoul.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e process of differentiation in Korean Chinese communities. This process would be continued as far as foreign immigration

* Master Degree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Sejong University(neoslam@naver.com)

** Ph. D. Associate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Urban and Real Estate Studies, Sejong University(shkimsdi@sejong.ac.kr)

continues. Therefore further researches required on more detail process of differentiation for various ethnic groups.

Key Words: ethnic community in Seoul, Korean Chinese, residential differentiation

◆ 2012.03.17. 접수 / 2012.05.09. 1차 수정 / 2012.05.21. 게재 확정